

만민 사역 배우러 온 해외 목회자와 일꾼들

영적 말씀과 만민의 사역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해외 자·협력교회 목회자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MMTC 교육을 마친 한 달 후, 이들의 모습이 사뭇 기대된다.

다시 오실 주님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을 맞기 위해 더욱 근신해 기도하며 신부단장에 힘써야 한다.

40년 광야생활을 통한 영적 훈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생활을 했다. 이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2세대에게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다.

이 좋은 하나님 사랑 진즉에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노년에 생명의 재단에 인도받아 사랑과 치료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전하는 기쁨 속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춘천만민교회 김영순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19호 2012년 2월 1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결 복음 사모해서 한국까지 왔어요”

해외 10개국에서 참석한 MMT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강



“성결 복음은 마음 깊이 있는 죄의 근본 뿌리까지 버리고 변화돼 결국 온전한 영의 차원까지 이끌어 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의 영혼들을 성결 복음으로 깨워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MMT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만민세계선교훈련원 Global Program) 개강예배에서 원장 이지영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스페인, 중국, 대만, 베트남, 카자흐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해외 10개국에서 참가한 약 40명의 교육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민”을 외쳤다.

개척 때부터 세계 선교에 비전을 갖고 활발한 사역을 이룬 우리 교회는 그 일환으로 선교인재양성기관인 MMTC를 설립해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왔다.

이번에 시작된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설교한 영적 말씀을 체계적으로 무장하고 우리 교회의 조직과 행정, 모든 사역 방법을 배우기 원하는 해외 지교회 목회자와 일꾼들의 끊임없는 요청으

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1만여 자 협력교회와 함께 세계 교구화를 가속화 하는 시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교육생들은 2월 27일까지 선교사 숙소에서 합숙하면서 오전 10

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은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후 3시~10시까지) 강의를 듣고, 각종 공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는 등 짙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한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를 비롯한 20명의 강사진으로부터 성령충만기도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레위기, 은사와 선교, 성결과 권능, 교회부흥의 비결, 일곱 교회, 예배, 심방 요령, 선교사의 리더십,



MMTC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한 달이라는 교육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려는 각오가 결연하다(장소: 새교우환영실, 영어와 중국어 동시통역).

키프로스 공화국에서도 MIS 강의 시작

지난 1월 27일, 지중해 동부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의 수도 니코시아에서 MIS(만민국제신학교) 교육 과정이 베레드 헨 로젠 사모(텔아비브 리빙스톤 교회)를 강사로 진행됐다.

강의는 매월 1회 1주일간 ‘십자가의 도’ 교재를 중심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로 동시통역된다. 수강생들은 강의가 없는 기간에는 교재로 독학하거나 강사와 이메일과 인터넷 영상통화를 통해 수업한다. 강사 베레드 사모는 “말씀을 전했을 때는 수강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라며 감사해했고, 그 영적인 뜻에 감탄해 마지 않았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거제도에도 우리 지교회가 있어요”

지난 2월 5일, 경남 거제시 옥포 2동에 소재한 거제만민교회(이승민 전도사) 창립예배가 이희선 목사(전국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를 강사로 있었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창 39:2-3)이라는 제목으로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훗날 총리가 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매너, 재정관리, 선교행정 등의 과목을 수강한다.

이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요약정리, 설교훈련, 성경 읽기, 성구 암송과 테스트를 갖는다. 또 GCN 방송국과 교회 여러 부서를 방문하며,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씨티 투어도 한다. 또한 23일에는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워크숍을 갖는다.

스페인 헨리 폴 목사(바르셀로나 알포리 만민교회는)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일꾼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다.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무척 기대되고 설렌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나딘 미암바 성도(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교회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는 큰 감동이 됐다. 이 목사님의 TV 방송 설교를 보고 한국에 꼭 와보고 싶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모든 프로그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